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9-10월호
2017년



White Sands National Monument, NM



내용 CONTENTS

- 한인회소식 | 한인 여러분께 | 문상귀 : 2
- 한인회광고 | 수재의연금모금/순회영사공고/김치축제 : 3
- 지역소식 | 저널 독자 선정상/KOWIN 행사참가(윤태자): 4
- 한국학교소식 | 한국학교소식 | 박영신 : 5
- 지역사회 | 지역사회 지난7-8월 소식 : 6-7
- 합창단 | 은혜의 강물처럼 합창연주회 | 이태길 : 8
- 칼럼 | 교회창립35주년을 맞이하면서 | 김기천: 9
- 수필 | 놀라운 은총 | 이정길 : 10
- 칼럼 | 백성을 어여뵈 여긴 ㅈ을 기리다 | 이은주: 11
- 생활상식 | 행복한 미국생활 #14 (사회보장연금) : 12
- TV 프로그램 | 다큐멘터리 베트남 전쟁 : 14
- 수필 | 주를 양모하는 자#2 | 김준호: 15
- 지역사회소식 | 위안부 알린다/뉴멕시코 컬쳐패스: 16
- 성경공부 시리즈 #6 | 에베소서 5장 | 현용규: 17
- 수필 | 자동차 이름과 사우스 웨스트 | 이경화: 19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교회 안내: 21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업소 : 22-23



한인 여러분께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이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을 느낍니다. 미국은 텍사스 휴스턴의 허리케인 하비(Harvey)로, 한국은 8월 29일 북한의 중거리 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북태평양에 발사하는 등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임기 5개월을 보낸 소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인회 일을 해 나가면서 요즈음은 정말 많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한주도 쉬지 않고 매주 수요일마다 차려지는 밥상을 보면서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묵묵한 봉사의 손길을 느낍니다. 임원, 이사님들의 솔선수범하는 봉사에서도 무한한 희망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 한인들의 소망이지 않았나 생각하며 한인회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문상귀

뉴멕시코 한인회장



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광복절 노래를 다 함께 불렀고 박찬영 사무총장님이 광복절의 배경과 정의, 김구, 안중근, 윤봉길 의사를 소개하고 제가 윤봉길 의사의 어록을 낭독했습니다. 박영교 어르신외 피 끓는 만세삼창 선창에 모든 교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삼창을 부를 때 감회가 뜨거웠습니다. 이어 이정길 교수님께서 '황성 옛터'를 불러 주셨고 이희정, 김옥선 님의 아리랑 춤과 이희정 예술분과 위원장의 살풀이가 이어졌습니다.

1. 뉴멕시코주 교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인 합창 교실과 문예 교실을 9월 초부터 열고자 합니다. 합창 교실은 감리교회 성가대 지휘를 맡고 계시는 이태길 목사님이 맡아 주시고 문예반은 전남대 명예 교수이신 이정길 교수님과 봉사자들이 함께 할 계획입니다. 교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때 더 큰 활동도 소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윤태자 수석부회장 (505-234-4306)과 이희정 예술분과 위원장(505-417-7452)에게로 문의 바랍니다.
2. 이번에 KALA(The Korean American Leaders Association) 미주 한인 지도자 뉴멕시코주 협의회 회장으로서는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위원회로부터 '대통령상 위촉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뉴멕시코 청소년 10명을 추천받았습니다. 현재 심사 중에 있고 9월 말까지는 각 단체와 기관에서 봉사한 성인 10명을 추천받아 시상식을 갖고자 합니다. 매년 같은 방법으로 행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3. 8월 8일 오후 1시 뉴멕시코 전쟁 용사 기념 공원(Veterans Memorial Park)에서 한국전을 기념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정길 전남대 명예 교수님께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일까지 전진, 후퇴, 교전에 관한 밀고 밀린 한국 전쟁에 대해 뉴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모임에서 설명하셨습니다.
4. 2017년 하반기 순회 영사 업무를 9월 26일(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인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민원업무에 관한 문의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순회영사실 이메일 : consul-la@mofa.go.kr, 전 화 : 213-385-9300, 내선 번호 15 또는 52로 하시면 됩니다.
5.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6일 오전 11시 한인회

6. 아버지회 야유회를 9월 20일(수) 오전 10시 한인회관에 집결 Fenton Lake State Park로 떠납니다.
7. 8월 23일(수) 저녁 6시 30분에 한인회관에서 임원회를 했습니다. 주요 회의 내용은 9월 20일 아버지회 야유회와 9월 26일 순회 영사업무, 청소년과 성인 미국 대통령 자원 봉사상, 효도 관광 기금모금을 위한 10월 21일 골프 대회와 비빔밥 판매, 거라지 세일, 10월 28일 김치 축제, 댄 루이스 시장 후보와의 간담회, 동포 대잔치, 효도 관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효도 관광은 늦가을이나 내년 봄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행사들은 교민들의 참여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시장 후원 모임은 9월 13일 한인회관에서 아버지회 모임 때에 합니다. ■



광복절기념식을 한인회관에서 거행

수재의연금 모금

뉴멕시코 한인회에서는 텍사스 휴스턴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Hurricane Harvey) 피해자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재의연금을 뉴멕시코 각기관 단체와 협력해서 모금하려고 합니다.

뜻이 있는 분들께서는 9월 30일까지 수요일 한인회로 오셔서 전해 주시거나 임원들, 한국마켓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한인회에서는 긴급구호자금으로 한인회 자금에서 1,000불을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모인 성금은 전액 휴스턴 한인회로 송금해 재난을 당한 한인가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KAAH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Houston) 1809 Hollister st., Houston TX 77080 비상대책본부 상황실 713-933-7541 부탁드립니다. ■



순회영사업무공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2017년 하반기 순회영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순회영사업무시 여권/ 가족관계등록(출생 · 혼인 · 이혼 · 사망), 국적(상실 · 이탈), 병역(국외여행허가), 공증(위임장 등 영사확인), 재외국민등록(등록 · 등본 발급), 사증(한인만 신청 가능), 신원조사증명서 등의 민원업무
2. 접수 · 처리
3. 실시일정: 2017년 9월 26일(화) 오전 10시~오후 2시
4. 실시 장소: 뉴멕시코주 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Albuquerque NM
5.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한인회, 문상귀 회장(505-991-8888)
6. 민원업무 내용 등 문의 :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순회영사실 - 이메일 : consul-la@mofa.go.kr - 전 화 : 213-385-9300, 내선번호 15 또는 52

2017 KOREAN KIMCHI FESTIVAL

OCTOBER 28, 2017 (SATURDAY)
@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M

9607 MENAUL BLVD. NE, ABO
(505) 271-1777
www.kaanm.com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New Mexico Properties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6739 Academy Rd.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888-1700

A member of the franchise system of BHH Affiliates, LLC. Equal Housing Opportunity.

Mi Kyong Kim
Mortgage Banker
NMLS #512561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60 Vassar Dr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07
www.bankofalbuquerque.com/mikyongkim
E-Mail: mkim@bokf.com
Direct: 505.855.0586
Mobile: 505.379.2944
Fax: 505.855.7301

김미경
주택융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Albuquerque Journal 독자 선정상에 한인 사업체 올라



앨버커키 저널에서 시행한 2017년 독자선정상은 4,574 명의 독자투표로 144 개 분야에서 1, 2, 3 등을 뽑아 발표했다. 한인 사업체로 이찌반식당(Ichiban Japanese Restaurant)과 오수나너서리(Osuna Nursery)가 선정됐다. 이찌반은 일본 식당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오수나는 너서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기타 몇가지 분야의 당선결과를 소개한다.

BREAKFAST BURRITO: 1. Golden Pride 2. Blake's Lotaburger 3. Twisters

JAPANESE: 1. Japanese Kitchen 2. Azuma Sushi & Tappan 3. Ichiban Japanese Restaurant

SUSHI: 1. Azuma Sushi & Tappan 2. Sushi King 3. Crazy Fish 3. Japanese Kitchen

CHINESE: 1. Rose Garden Chinese Restaurant 2. Budai 3. Rising Star Chinese Eatery

NEW MEXICAN: 1. Sadie's 2. Monroe's Restaurant 3. El Pinto 3. Garcia Kitchen

SOUP: 1. Panera Bread 2. Annie's Soup Kitchen 3. Sweet Tomatoes

VIETNAMESE: 1. Viet Taste 2. Basil Leaf Vietnamese 3. May Cafe

THAI: 1. Thai Tip 2. Thai Vegan 3. Thai Kitchen

PLACE TO PEOPLE WATCH: 1. ABQ International Sunport 2. Old Town 3. Frontier Restaurant

GARDEN SUPPLY/NURSERY: 1. Osuna Nursery 2. Jaricho Nursery 3. Rehm's Nursery and Garden Center

GROCERY STORE: 1. Smith's 2. Sprouts Farmers Market 3. Trader Joe's

HIKING TRAIL: 1. La Luz Trail 2. Embudo Trail 3. Tent Rock Trail

DAY TRIP DESTINATION: 1. Santa Fe 2. Jemez Spring 3. Tent Rock

윤태자 부회장 코윈 행사 참가

국내외 한인여성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17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가 8월 30일에서 9월 1일 금요일까지 전북 군산시 새만금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다. 8월 29일에는 사전행사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코윈 지역담당관 등 국가별 대표 회의와 국외참가자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만찬이 있었다.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군산시가 주최 국내외 한인여성리더 500여 명이 참가했다. 'Happy Family! KOWIN Together!' - '삶·애·중심, 가족의 가치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개회식에 이어 글로벌 여성 리더포럼, 활동 분야별 전문포럼, 대회 주제인 가족 관련 주제 전문가포럼, 경제·문화·사회·공공 등 분야별 주제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부대 행사로는 여성 기업·가족 친화기업 상품전시전, 여성·가족 이슈 및 전라북도·군산시 지역 특별전시전 지역 문화탐방·기관방문, 오·만찬 행사가 이어졌다. 뉴멕시코에서는 윤태자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참가했다. 윤 부회장은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한 분야별 정책과제 기술, 산업, 사회 분야와 2025년에 전망되는 미래 사회 모습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여성들이 어떤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자녀를 교육하는지 가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족 일원으로 협력하며 가치관을 추구하나 등 패널들도 열심이었다. 토론을 마치고 오후에는 관광을 했다. 선유도, 군산의 동국사, 근대 역사박물관, 고우당 . 일본식 가옥, 근대 미술관 등을 돌아보았다. 많이 준비하고 애쓴 것에 감사하며 민간 외교관으로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



한국학교소식

한국학교소식

안녕하세요. 한국학교 교장 박영신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선 지금, 한국학교의 이번 여름은 무척 즐겁고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성인반 학생들과는 인텐시스 코스를 통해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아동반 친구들과는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에 대해 공부하는 캠프를 가졌습니다. 지난겨울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여름방학 캠프에는 15명의 아이들이 참여했고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인 거북선, 그의 작전, 난중일기 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책을 만들고 또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바다 단체화 그리기 및 거북선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윤태자 수석 부회장님 댁에서 진행한 여름 파티에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민명희 부회장님께서도 오셔서 아이들과 푸짐한 간식과 한국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인회의 후원으로 네 명의 선생님들이 LA에서 진행하는 미주 한국학교연합회의 교사 연수회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아침부터 밤까지 진행한, 짙고도 짙은 일정 속에서도 앨버커키로 돌아가서 자료를 나눌 마음으로 모두 열심히 강의를 들었고 저희 젊은 교사들의 열정에 오히려 미주한국학교 총연합회와 한국에서 오신 강사진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아 교장으로서는 보람을 느끼고 또한 교사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한국의 동포재단에서 진행한 한국학교 교사연수회를 다녀오신 이은주 선생님과 함께 자체적으로 교사 연수를 진행하여 서로 배우고 자료를 나누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바쁜 여름을 보내고 8월 말에 가을학기를 시작하였고 벌써 개강도 2주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학부모의 전근, 학생의 이직 등으로 이사를 간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90%의 학생들이 재등록을 하였고 신규학생들을 포함하여 50여 명의 학생들과 7명의 교사가 한국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부터는 선생님들의 역량과

박영신
한국학교 교장



수업지도에 대한 자료 및 스킬 등을 공유하고자 자체적으로 연수회를 매달 1번씩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좋은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모델 수업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서로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모로 애써주신 한국학교의 고문이신 이은주 선생님과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약속하신 문상귀 회장님을 비롯한 한인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은 우리 한국학교가 많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저 자신부터 더 많이 노력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과 늘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우리 학교의 가능성을 봅니다. 아무쪼록 뉴멕시코 한인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7월-8월)

7월13-16일 한국 이천 도자기 산타페 ART SANTA FE 참여

산타페에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Art Santa Fe'가 열렸다.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하 이천조합) 소속의 도예가들은 7월 16일 (일) 늦은 오후 산타페 컨벤션 센터(Santa Fe Convention Center)에서의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고 산타페에 거주하는 이윤정 씨 자택에서 만찬과 함께 전시회 내용과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산타페 행사에 참여하는 이천조합 소속 도예가들을 3년째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이윤정 씨 자택에는 이천조합 도예가들과 이대영 조합 이사장 외 김두남 전 뉴멕시코 한인회장, 산타페 거주 예술인 부부인 Gary Kim과 Helena Kim (G.K Fine Art Gallery) 내외 등이 참석했다. 행사일정 및 전시 기획과 운영 등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은 지역 교민들도 함께했다. 올해 산타페 미술전시회 (Art Santa Fe) 및 민속 예술 시장 (Folk Art Market)에 참가한 이천조합과 도예가들은 한국 전통의 청자, 백자, 분청사기부터 도자기 가구, 도자 공예품 등 현대적 감각을 아우르는 작품들의 전시, 출품을 통해 한국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한편 조병돈 이천시장은 '제14회 국제포크아트마켓'에 초청받은 자리에서 곤잘레스 산타페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 도시의 우호증진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조 시장은 '국제 포크아트 마켓'과 '아트 산타페'를 방문해 이천지역 참여 작가들도 격려했다. 이어 곤잘레스 산타페 시장 등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이천도자기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렸다. 조 시장은 도자기 분야에 한정됐던 교류를 학생, 문화, 예술, 공예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며 특히, 문화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천시와 산타페 두 도시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교류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상귀 회장 차세대 위원장으로 추대

뉴멕시코주 문상귀 한인회장이 미주 차세대 전·현직 한인회장 간담회에서 미주 차세대 위원장으로 추대 되었다. (8월19일 LA) 이 모임은 동포사회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자발적 성격의 모임이다. 한인사회가 안고 있는 공통의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과제다. 가장 활동력이 왕성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50대의 전·현직 한인회장들이 250만 미주지역 동포들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멤버로 활약한다. 이들이 제시한 공통 사안은 LA 한인회 로라 전 회장의 선전적 복수국적 문제, 한국인 입양아 국적 문제, 시카고 한인회 정종하 전 회장의 정치력 향상 풀뿌리 운동, 가주 한미포럼 김현정 사무국장의 위안부와 소녀상, 버지니아 한인회 홍일송 전 회장의 독도와 동해 문제, 인랜드 한인회 김동수 회장의 애국 선조 뿌리 교육, 샌프란시스코 강승구 회장의 상공경제, 뉴멕시코주 한인회 문상귀 회장의 한국학교와 차세대교육 등에 대한 현안 설명과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와 및 참여방안이다.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 (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Lunch
11:30-2:30 Mon-Sat
Dinner
4:30-9:30 Mon-Thur
11:30-10:00 Fri, Sat
4:00-9:00 Sun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7월-8월)

임넨시 한인회 전 부회장 칠순 축하연

임넨시 한인회 전 부회장이 칠순을 맞아 8월 19일 오후 6시 사무라이 식당에서 축하연을 열었다.

임 씨는 1984년 도미, 2001년 제9대 최진 회장 임기 때부터 한인회 임원으로 봉사해왔다. 역대 전임 회장들을 도와 전 임기까지 부회장직을 맡아 봉사했다. 1984년부터 군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Kirtland Air Force Base Dinning Facility, Thunder Bird에서 일해왔고 현재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수년 전에 부군을 여의고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임넨시 씨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보편화 될 정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생일 축하 자리를 해야 할 지 많이 망설였다. 주변 가까운 분들, 한인마켓과 사무라이 식당에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생일을 축하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지내 온 시간을 감사하고 정을 나눴은 분들과 조촐하게 식사라도 하고 싶어서 하기로 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과 여러 가지 여건상 함께하지 못한 분들께도 지면을 통해 인사드린다. 더 많은 분을 초대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임넨시 씨는 정찬과 함께 하객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샌디아산 곰 출현으로 일부 지역 폐쇄

미 산림청(U.S. Forest Service)은 샌디아산 동쪽에서 곰의 활동이 늘어나 샌디아산 피크닉 지역 일부를 폐쇄했다. 10월까지 폐쇄된 지역은 샌디아 동쪽 Sandia Crest Road의 남쪽 끝에 위치한 인기 있는 Sulphur Canyon, Cienega Canyon 및 Doc Long 피크닉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8월에 들어서서 Cienega와 Sulphur에서 발견된 어미 곰과 새끼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서 적어도 4번이나 곰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크기가 약 400파운드인 곰이 닥롱(Doc Long)에서 한 가족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10월 31일까지 폐쇄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전에 재개장될 수도 있다고 한다. (출처:아리조나타임즈 뉴멕시코 소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뉴멕시코 위원

9월 1일 제18기 민주평통의 출범을 앞두고 뉴멕시코 민주평통 자문회의의 자문위원에 문상귀(현 한인회장), 조규자(15대 한인회장), 한광윤(현 한인회 부회장/이사) 씨가 위촉됐다.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www.japanesekitchen.com
Phone: (505)884-8937, (505)872-1166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Japanese Kitchen
Sushi & Japanese Cuisine

651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72-1166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

합창 연주회

겨울의 길목에서 은혜의 강물처럼 합창연주회



이태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성가대 지휘자/원로목사

이번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담임목사 김기천)에서는 지역 교민들과 지역 성도님들을 위하여 성가 및 가곡, 가요 등 아름다운 합창곡으로 연주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합창을 사랑하시는 지역교민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합창을 통하여 어울림의 아름다움 느끼며 서로를 존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교민들께서는 매주 오후 3시에 연습장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장소는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본당에서 하며 연주회는 12월 초순경에 가질 예정입니다.

지역 교민들과 지역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이사야 43:21)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시편 150:6)

기도를 영혼의 호흡에 비교한다면 찬양은 우리 몸의 맥(脈)에 비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멈출 수 없는 맥박에 비유하는 무리들이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호흡은 스스로 참을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으나 맥은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뛰고, 신체 리듬에 따라 아주 여러게 부터(pp), 때로는 아주 세게(ff), 조금 느리게 뛰다가 원래의 뛰기로 돌아가는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며 신체균형에 따라 거짓 없이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맥과 같아서 쉬도 없고 멈출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모 방송국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의 자격 조건을 하나로 합창을 통한 하모니를 경험하라는 미션 수행 과정을

방영하여 구성원과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들로 구성된 찬양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순례자가 되기를 자청한 성도들의 열정을 담아 연주회를 열려고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언제나 부족한 모습이라면 현재의 모습을 최선으로 담아 더 늦어지기 전에 곡조 있는 기도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지휘자 약력: 이태길 목사는 계명대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대구 대학교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석사과정을 마쳤다. 한국에서는 영주 영광고등학교, 대구 영신중학교 등에서 음악교사로 활동하면서 영주 제일교회, 대구 수석교회 등에서 20여 년간 성가대 지휘를 맡아 활동하셨다. 현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성가대 지휘자이다.(편집부)

음악회에서 부를 노래 선곡: 가곡/동요는 아래의 곡목중에서 선곡 예정이다. 고향의 노래(이수인), 내맘의 강물처럼(이수인), 사공의 노래(홍란파), 보리밭(윤용하), 사랑으로(이주호), 고향의 봄(홍란파) 섬집아기(이흥렬). 성가로는 분향을 향하네(김두완),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Don Besig),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Mary McDonald), 은혜의 강물따라(이지영)와 여러곡이다. 연합감리교회 주소: 601 Tyler Road NE (Edith and Osuna Rd에서 2블럭 북쪽, Edith로 들어오면 된다.)

합창 관련 문의 (505)347-8974 revtedyi@gmail.com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 Chang

DGM, DSCM, Dipl. OM, Dipl. Ch. Lic.

보통의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칼럼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면서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몇 주 전 수요일 저녁 예배 때였지요. 8월의 한 여름 더위가 교회 내부를 한껏 뜨겁게 달궜은 상태에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때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찬양팀이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에어컨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교회 안이 무척이나 더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온도조절기도 문제가 없고 밖에 에어컨 컴프레서도 돌아가는데 문제는 찬 공기가 돌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본당 앞문 뒷문을 다 열어놓고 실내 온도를 내려 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그 날 저녁 예배는 모두 매우 뜨겁게 드렸습니다.

제가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 담임한 지난 14년 동안 한 번도 에어컨을 수리하지 않았지요. 에어컨은 망가질 때까지 사용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매년 에어컨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지난 14년 동안 안했던 에어컨 점검을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에어컨 전문가 말대로 매년마다 에어컨 상태와 가스압력 필터 등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지요.

올해로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가 세워진 지 3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달 9월 10일에 창립 35주년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면서 냉방기인 에어컨만이 아니라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적 온풍기입니다.

온풍기는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는 기계이지요. 차갑고 매서운 바람으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날 밖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면 온풍기가 따뜻한 바람으로 굳어졌던 몸을 녹여주고 긴장했던 마음을 풀어주지요.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안에도 영적 온풍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매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밖에서 교회로 들어오면 안에서 따뜻하고 훈훈한 바람이 느껴지는 교회인지 점검해보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교회인지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신약성경 원어로 “프뉴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뉴마”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뜻 이외에도 “바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성령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찬 바람이 아니라 더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도행전 2장 3절에서는 성령을 “불”로 묘사를 했습니다. 즉 성령은 영적으로 “뜨거운 바람”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질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항상 뜨거운 바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교회가 알버커키에 처음으로 세워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창립한지 35년이 지났습니다. 35년이란 시간을 보내면서 혹시 영적 온풍기가 망가져서 냉랭한 교회가 되고 있지 않는지 자체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교회가 영적으로 더워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도 점점 더 많아졌고, 교인들 간에 사랑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는 예배를 마치면 교회 문을 목사가 닫았지요. 요즘은 예배 후에 누가 교회 문을 닫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서도 여전히 남아서 성도의 교제를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서도 성가대 연습을 비롯해서 각종 행사들로 인해서 교인들은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 있지요. 교회 안에 분명히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따뜻한 정도를 넘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



A-1

日本の食品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놀라운 은총

하느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은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스펀라 철학에서는 인간 이성에 의하여 사물을 인식하는 타고난 능력인 자연의 빛에 대하여, 신을 알기 위하여 인간의 지성에 주어진 능력을 은총의 빛이라고 한다. 애조 띤 노래 ‘놀라운 은총’은 들을 때마다 나를 되돌아보게 한다. 1970년대 중반에 호주에서, 나나 무스꾸리가 부르는 것을 처음 들었고, 기숙사 사감 맥그레거 신부님이 가끔 휘파람으로 부르는 것을 들었다. 킨트를 입은 사람이 백파이프로 느리게 연주하는 것을 듣고는 애처로워지기도 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영국의 시인이며 성공회 신부였던 존 뉴턴이 쓴 시인데, 후세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1725년에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해운 무역상이었고, 성직자가 되기를 바라던 어머니를 여섯 살에 잃는다. 정서적으로 너무 먼 계모 밑에서 자라고, 기숙 학교에서는 학대 당한다. 열한 살에 견습생으로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지만 옹고집을 부리는 반항아로 점 찍혔다. 그 성격이 마침내 해군에 징집 당하게 만들었고, 거기서도 휴가 뒤에 늦게 귀대하기를 일삼다가 끝내 탈영까지 한다. 혹독한 대가를 치른 뒤 노예 수송선에서 노예 매매업을 시작한다.

배를 타는 직업을 끝내고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1755년이었고,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1764년 성공회 사제 서품을 받은 뒤부터였다. 1773년 새해의 날 설교를, 실례를 들어 설명하려고 쓴 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이었다. 당시 음악이 수반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신자들이 되풀이하여 읊조렸을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다. 1779년에 처음으로 영국의 기독교 찬송가로 인쇄되었으나,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배를 타던중 심한 풍랑을 만나 파선될 지경에 이르자, 종교적 신념 없이 자란 그가 하느님의 자비를 빌었다고 한다. 성직자가 되어서는 열렬한 노예 제도 폐지론자가 된다. 시와 노예 제도 반대의 감정을 결부시킨 적은 없으나, 그에게 새해의 초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돌이켜 보는 시간이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곧 시로 쓴 그의 영적 자서전이었었고, 시의 첫 연은 자신이 치사한 놈이었기 때문에 노예 매매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깨달음의 표현이었다. 은총의 뜻을 보다 더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그는 하느님 또는 하느님의 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놀라운 은총은 훗날 미국에서 광범하게 사용된다. 19세기 초에 일어난 인도주의적인 제2차 신앙 부활 운동중에는 스무 가지 이상의 가락을 탔고, 1835년에 뉴 브리튼이라는 이름의 선율과 하나가 된 것이 오늘날 가장 자주 불리고 있다. 그뒤 민속 음악에 열중하던 주디 콜린스가 1970년대 초 반전 운동곡들을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수록하여 내놓은 앨범에 포함되었고, 그녀가 저작권을 포기한지 2년 뒤에는 영국 육군 스코틀랜드 연대의 친위대가 악기형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녹음했다. 이런 연유로 내가 유학 시절에 처음 들었고, 백파이프 독주자가 연주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 성가학 사전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된 기쁨을 고백할 때 이 성가를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죄를 용서 받았을 때, 면죄를 확신했을 때, 신앙을 고백할 때, 심원한 설교를 들은 뒤에 부르라고 가르친다. 지은 죄에 상관 없이 용서와 속죄를 받을 수 있으며, 하느님의 자비로 절망에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메시지는 영어를 구사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민속 찬가로 인정 받는다. 만민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세속 음악으로 넘나들게 만들었고, 매년 수만 번 이상 연주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미국의 흑인 영가를 대표하는 곡이 되어 대중 음악 차트에도 가끔 오른다. 굉장한 대중성과 초상성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사가 마치 자기를 빗대어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나 같이 비열한 자를 구해주셨다.’는 대목이 언제나 내 가슴을 찌른다.

제리 채프만은 미 해군 하사관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다. 매월 두 째 화요일에 열리는 앨버커키 한국전 참전 용사회 모임에 찾아갔다가 만난 사람으로, 그때 회장을 맡고 있었다. 그것이 2011년이었는데, 그뒤 6.25기념일이나 한국 정부에서 메달을 전수하는 식 또는 뉴멕시코 한인회에서 추수 감사절이면 참전 용사들을 초대하여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만나고는 했다.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작고한 그의 추모식이 얼마 전 앨버커키 재향 군인 기념 공원에서 열렸다. 죽음 후에 전달된 훈장과 전쟁중의 업적이 소개될 때는 분위기가 숙연했고, 생전의 언행이 돌이켜질



때는 장내가 웃음 바다를 이루기도 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짧게 하겠다는 미망인의 인사말로 식을 모두 마쳤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백파이프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흘러나와 대미를 장식한다. 그 가락이 끝내 나를 울려 견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

백성을 어여삐 여긴 포을 기리다



이은주

주님의 교회 사모
아리조나 타임즈 기자

세종대왕과 관련한 국가기념일은 세종 탄신을 기념한 ‘스승의 날’과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는 ‘한글날’이다. 한글날은 1926년에 처음 제정되어 광복 후에 양력 10월 9일로 확정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했다. 음력 9월 29일로 정한 것은 『세종실록(世宗實錄)』 28년(1446) 9월 조의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是月訓民正音成)’를 근거로 했다. 한글날은 한글이 가져다준 의미를 기리는 날이다. 한글은 한자로는 이루기 어려웠을 다양한 분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올해로 한글 반포 571돌을 맞아 한글 창제의 주체와 시기, 가치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1. 한글 창제 누가 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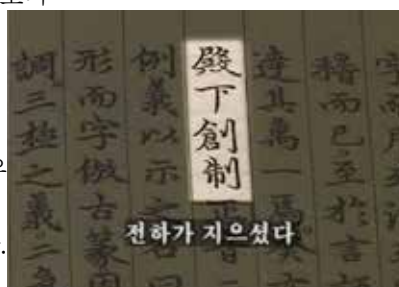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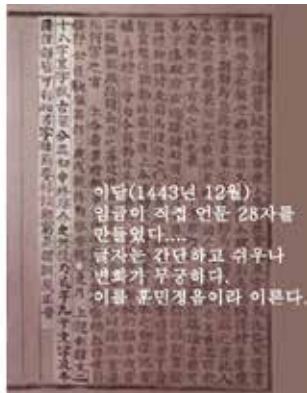
훈민정음 창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세 가지 설이 있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첫째,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만들 것을 명했다.’ 둘째, ‘세종이 정인지, 신숙주 등 집현전 학자들과 그의 가족, 왕자와 공주의 도움을 받아 공동으로 연구하고 완성했다.’ 셋째, ‘세종이 직접 만들었다.’이다. 근자에 많은 언어학자와 역사학자들은 한글 창제와 관련한 기록을 통해 세종이 전적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무게를 두어 친제설(親製說)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친제를 증명하는 기록으로는

가. 조선왕조의 공식 기록인 사관들이 기록한 ‘세종실록’에서 나타난다.

세종 25년(1443년) 이 달에(12월)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글자는 간단하고 쉬우나 변화가 무궁하다. 이를 훈민정음이라 부른다.’

나. 훈민정음 해례본(解例本)의 어지에서 세종 자신이 친제(親製)를 언급했다. ‘(1446년 9월) 내(세종) 이를(백성에게 글자가 없는 것) 어여삐(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집현전 대제학이었던 정인지가 쓴 서문 ‘(1446년 9월)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셨다.’고 했다.



2. 혼자 했다면 왜 혼자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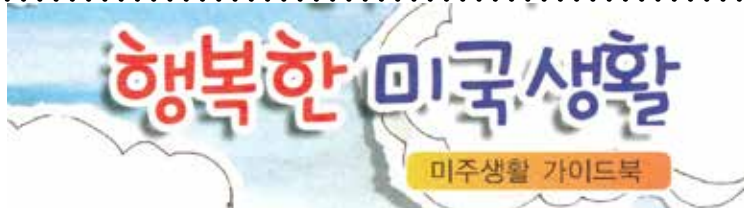
이는 세종실록에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다. 당시 다른 업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있어도 창제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는 이유는 반포 후 상소문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극비리에 진행하고 훈민정음이 완성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반포하지 않았을까? 집현전 부제학이었던 최만리를 대표로 일곱 명의 학자들이 올린 반대 상소에는 ‘중국과 다른 문자를 만드는 것은 사대의 예에 어긋나며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것이다. 언문을 굳이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재상에서 신하까지 널리 상의한 후 행해야 할 것인데 갑자기 널리 퍼시려 하시니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한다. 한글 창제가 세종 혼자 이룬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집현전에서 만든 것을 집현전이 반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국을 견지한 엄청난 반대를 예상한 세종이 비밀리에 작업했다는 얘기이다.

3. 얼마나 걸렸을까?

스물 두 살에 왕위에 올라 54세로 생을 마감한 32년의 재위 기간 동안 그가 이룬 업적은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대였다’는 한마디로 정리된다. 방대한 편찬사업의 주도역할을 할 만큼 뛰어난 실력과 인품을 갖추었다.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체성과 애민 정신으로 독창성에 빛나는 민족 문화 유산을 일궈냈다. 아버지 태종이 아들이 병이 날까 두려워할 정도로 학문에 대한 열정이 깊었다. 연구 타인지 ‘30대 초반부터 질병이 있었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똥똥했던 세종이 왕위에 올라 수척해졌다’는 기록도 있다. 우리 문자의 필요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백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 충격을 입은 세종이 충신, 효자, 열녀 등의 사례를 담은 삼강행실도 간행을 지시하면서이다. ‘1434년(세종 16년)에 간행된 삼강행실도에는 내용에 맞는 그림을 함께 넣어, 글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글을 모르는 백성이 그림만으로 제대로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세종의 걱정이 실록에 남아있다. 그 후 1443(세종 25년)년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서 세종은 어리석은 백성과 문자에 대해 다시 언급한다. 그 시차인 9년 동안의 어느 시간동안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4. 가치

그렇게 완성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12월 국보 제70호로 지정되고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다. (참고: 네이버 검색) ■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 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즈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일리노이주에서 출판된 자료임으로 2017년 뉴멕시코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편집부)

2-6 사회보장연금 (은퇴연금)



이온달씨는 이민을 온 이후로 미국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한후, 정년 퇴직 나이인 66세가 지나도록 일을 했다. 하지만 아내 조평강씨는 딸 이세오가 태어난 이후로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자녀 양육과 가사 일에 전념했다. 이온달씨는 퇴직하기 2년 전, 66세가 되던 해에 은퇴 연금을 신청하려고 사회 보장국을 방문했었다. 그때 사회 보장국 직원은 은퇴 연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며,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은퇴 신청을 미룰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 뿐 아니라 은퇴를 미루고 일을 할 경우 70세까지는 은퇴 연금이 늘어나지만, 조기 은퇴를 한 후 은퇴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경우, 국가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연 소득의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받아야 하는 은퇴 연금의 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회보장국 직원에게 이온달 씨는 은퇴 연금을 받을수 있는 40 근로 크레딧을 채우지는 못한 아내 조평강 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질문과 함께 이온달 씨는 친절한 사회 보장국 직원의 이름도 함께 물어보았다. 매튜라는 이름의 사회 보장국 직원은 배우자 연금 혜택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온달씨는 부부중 한명이 근로 크레딧이 없을지라도 현 배우자 또는 10년 이상을 함께 산 전 배우자가 은퇴 연금 자격이 있을 때에는 그 배우자 은퇴 연금액의 반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혜택 및 유가족 혜택이 있음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매튜는 본인의 근로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은퇴 연금보다 배우자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배우자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매튜는 이온달 씨에게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어서 개인 신상 정보뿐 아니라 은퇴 연금 신청 및 기타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며, 사회 보장국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한국어로 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집에 돌아온 이온달씨는 자신이 들은 모든 정보를 조평강씨에게 전할

임도가 나지 않아, 사회 보장국 웹사이트를 방문해 한국어로 번역된 은퇴 연금 페이지를 열어 놓고 자신의 아내를 부른다.

전문가의 한마디

사회 보장 연금 수급 자격

개인이 근로 활동을 하면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면 사회 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크레딧은 개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1929년 이후 출생하신 분의 경우에는 40 크레딧, 약 10년간의 근로 경력이 필요합니다. 1년에 얻을 수 있는 최대 크레딧은 4크레딧입니다. 사회 보장 연금 수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크레딧을 쌓기 전에 근로 활동을 중단하면, 적립된 그 크레딧은 개인의 사회보장 기록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근로 활동을 재개하면 다시 크레딧을 적립할수 있고 수급 자격도 얻을 수 있습니다. 40 근로 크레딧을 쌓으신 후에는 사회 보장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연금액 산정

개인의 은퇴 연금은 근로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근거합니다. 생애 소득이 높을수록 수금액도 많아집니다. 근로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적었던 기간이 있으면, 은퇴 연금액은 꾸준히 근로 활동을 했을 때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지급액은 퇴직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62세 (가장 빠른 퇴직 연령) 에 조기 퇴직을 하시게 되면 만기 퇴직 연령에 받으실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지급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이 요약된 사회보장 명세서를 매년 받습니다. 25세가 되는 근로자는 일회성 명세서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사회보장 명세서는 개인의 소득 기록을 제공하며 여러 퇴직 연령에 따른 본인의 사회보장 급여 추정 액수를 가르쳐 줍니다. 이 명세서에는 또한 퇴직 전에 장애가 되어 일할 수 없게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장애 급여 추정액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망하면 사회보장청이 그 배우자와 유자격 가족에게 제공하는 생존자 급여의 추정액도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청 웹 페이지에서 온라인 계정을 만들고 자신의 명세서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정년 퇴직

은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만기 연령은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다음 차트는 출생연도별 만기 퇴직 시 연령입니다.

사회보장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출생연도	만기 퇴직시 정년
1943년 ~ 1954년	만 66세
1955년	만 66세 2개월
1956년	만 66세 4개월
1957년	만 66세 6개월
1958년	만 66세 8개월
1959년	만 66세 10개월
1960년 이후	만 67세

참고: 1월 1일에 태어난 분은 그 전 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기 퇴직

만기 퇴직 연령 이전에 62세 부터 사회보장 퇴직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만기 퇴직 연령까지 기다리셨다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75% 을 받으시게 됩니다. 62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몇 년 동안의 소득 공백으로 인해 퇴직 후 지급되는 사회보장 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때로는 불의의 사고나 건강 때문에 조기 퇴직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보장 장애 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나중에 감액되지 않은 퇴직 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장애 연금을 받으시다가 퇴직 정년에 이르시게 되면 이 급여는 퇴직 연금으로 전환됩니다.

■퇴직연기

퇴직 정년이 지나도 근로 활동을 지속하시게 되면 향후 받게 되는 사회보장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한 해씩 근로 활동 연수가 늘어날 때마다 사회보장 기록상의 소득연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생애 통산 소득액이 많아지면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퇴직 정년에 이른 시점부터 퇴직 연금을 받을 시점까지 혹은 70세에 이를 때까지, 향후 받으실 연금액은 특정 비율만큼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이 증가 비율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1943 년에 출생하신 분의 경우, 만기 퇴직 정년이 지나 서도 사회 보장 연금 신청을 연기하면, 1년 연기시마다 받게 될 급여액의 8%를 가산해 드립니다.

■참고: 근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은퇴 연금을 받을 경우

근로 활동을 하시면서 퇴직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기 퇴직 연령이 되는 달 또는 그 이후의 소득 때문에 사회보장 급여가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기 퇴직 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매 2달러 당 1 달러씩 수령급여가 감액됩니다. 만기 퇴직 연령이 되는 해에는 만기 퇴직 연령이 되는 해당 월까지,연간 소득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매 3달러당 1달러씩 받을 급여가 감액됩니다.

■과세대상 은퇴 연금

사회 보장 급여 소득도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개인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종합 소득이 \$25,000 - \$34,000 인 경우에는 본인 사회보장 급여의 최대 50% 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합 소득이 \$34,000 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 사회보장 급여액의 최대 85%가 소득세의 대상입니다.
- 부부 합산으로 세금 보고를 한 경우에는, 합산 소득이 \$32,000 - \$44,000 인 경우, 수령 금액의 50%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합산 소득이 \$44,000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은퇴 연금 신청은 원하는 급여 지급 개시 날짜 보다 약 3 개월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출처: www.socialsecurity.gov

이온달씨와 조평강씨는 저녁을 먹고 나서도 한참을 함께 은퇴 연금에 대해 공부 하던 중 불현듯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 이후에 유가족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궁금해 졌다. 마침 얼마 전 60년 이상을 함께 한 남편을 사별하신 교회 김 권사님을 떠올리며 다음날은 유가족 혜택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는 잠을 청했다.

전문가의 한마디

배우자 연금

■배우자연금

근로 활동을 한 적이 없거나 근로 활동을 했더라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전체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배우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퇴직 연금과 배우자 연금에 대해 동시에 수급 자격이 될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을 우선 받게 됩니다.

배우자 혜택 연금액이 본인의 퇴직 연금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액수가 더 높은 배우자 연금액에 해당하는 합산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 정년이 지났고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의 급여와 더불어 본인 퇴직 연금도 받으실 수 있는 분의 경우에는, 배우자 급여만 받으시고 본인의 퇴직은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연금은 지연된 연금 크레딧의 효과에 근거해 더 높은 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만기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회보장 연금액을 받으시게 되면, 만기 시 퇴직 연령에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금보다 감액된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가령,

- 근로자의 퇴직 정년이 65세일 경우, 62세에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해당 근로자 연금액의 37.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퇴직 정년이 66세일 경우, 62세에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해당 근로자 연금액의 3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16세 미만의 자녀 또는 해당 근로자의 사회 보장 연금 유자격자로 등록된 사회 보장 장애 연금 수급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자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연금

은퇴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배우자와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전 배우자의 사회보장 기록에 근거해 배우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이전 배우자와 배우자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개인 모두 62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전 배우자가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재혼을 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를 통한 배우자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레일 러너, \$1 프로모션 요금 제공



레일 러너 익스프레스는 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네번째 주말에 승객들에게 \$1 운임을 제공한다.

8월26일에서 27일, 9월23일부터 24일까지, 10월28일부터 29일까지의 할인 운임은 산타페에서 앨버커키 도심, 벨튼까지이다.

레일 러너 대변인 Augusta Meyers 씨는 기차를 타고 싶었지만 시도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하며 할인 제공의 기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아리조나 타임즈) ■

품속의 아기

벼락이 치고 천둥이 울린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으로 뛰어든다. 이것을 본 아버지가 벼락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에게 설명한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안심과 평화를 주는 것은 아버지의 설명이 아니라 엄마의 '품속'이다. 그곳은 피부와 피부가 접촉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영어로 'Love with skin on'이라고 한다. 사랑은 물질이나 이론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피부를 통한 사랑 혹은 몸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것은, 내가 그를 가깝게 여기는, 마치 체온이 통하는 것과 같은 사랑의 인간관계에서 올 수 있는 것이다. (최효섭:현대예화사전에서, 1995) ■

다큐멘터리:

베트남 전쟁(The Vietnam War)

PBS에서 9월17일 방영시작



2017년 9월 17일 오후 7시에 채널 5의 PBS는 베트남 전쟁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첫 방영을 시작한다. 다큐멘터리의 거장 켄 번즈(Ken Burns)와 린 노빅(Lynn Novick)이 10년이란 긴 시간을 투자해서 제작한 TV 시리즈로 10개의 파트로 구성된 18시간의 다큐멘터리 대작이다.

“우리가 제작했던 그 어느 것 보다는 야심찬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라는 데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켄 번즈 씨는 자신 있게 소감을 말한다. 이어서 말하길 “제작에 들어갈 때에는 스스로 베트남 전쟁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임했지만, 작업을 하면 할수록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창피해지는 마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알고 있었다는 개념을 모두 버리고 백지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베트남 전쟁을 설명하려고 접근했습니다.”라고 했다.

다큐멘터리는 미국이 보는 관점과 베트남이 보는 관점을 모두 존중하면서 전쟁을 파헤쳐 들어간다. 미국이 어떻게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는지도 자세히 설명하고 미라이(My Lai)와 휴(Hue)에서 있었던 학살사건 진상도 취급한다.

켄 번즈와 린 노빅과 제작팀은 편집과정에서 10만 장이 넘는 사진 자료와 5천 시간이 넘는 분량의 영상을 점검했다. 다큐멘터리에 취급된 100명 가까운 증인의 참여는 전쟁을 반대한 시민,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 베트남인, 미국인, 승자와 패자 할 것 없이 여러층의 사람을 망라하였고 견해를 달리하는 여러 저명한 역사가와 베트남 문제 전문가들에게서 협조를 받아 다큐멘터리가 제작됐다.

배경음악으로 Yo-Yo Ma와 실크로드앙상블의 연주와 Bob Dylan, Jimi Hendrix, Janis Joplin 등의 노래도 나온다.

“우리는 베트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전쟁은 잘못된 것인가? 누구의 잘못이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논할 가치는 있는가? 같은 많은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런질문에 답하기 보다는 전쟁에서 일어난 많은 사실이 밝혀짐으로 인해 새로운 질문들을 더 제시될 것으로 봅니다.”라고 번즈씨는 전국 방영 소감을 결론지었다.

PBS 채널 5의 방영시간은 9월17-21일 오후7시와 9월 24-28일 오후 7시이다. (편집부) ■

수필

주를 앙모 하는자 #2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찬:347장)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큰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제가 택한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는 이집트 땅에서 태어났고 모세를 도와서 40여 년 동안 했던 지긋지긋한 굴욕 생활을 청산하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성공시킨 모세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큰 인물이지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면서 후계자를 달라고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케 하라”, 고 했었습니다. 이 일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어려운 일들을 잘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하며 비록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큰 능력을 못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분량대로 힘써 일해야 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 시내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북진하였지요. 이곳은 가나안 남단까지 알버커키에서 산타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까지 왔었어. 그런데 거기서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즉 모세는 각 지파에서 정탐꾼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의 실태를 파악하게 하였는데 이들은 헤브론지역과 하솔과 르흠까지 무려 300마일을 40 일 동안 답사를 하고 와서 모세와 온 회중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7-28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 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야낙 자손을 보았다고 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악평을 하였지요. 모든 백성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였다고 했습니다. 정탐꾼으로 함께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터무니 없는 망언을 들으며 옷을 찢으며 분개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진노를 내려서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추수할 땅도 없는 광야에서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 노예근성을 가졌던 기성세대가 모두 잠들 때까지 고초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한심한 어린애들처럼 철없이 굴된 기성세대를 용서하지 않고 벌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세대를 이끄는 아주 영특한 군대 지휘관이었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지적하고 싶은 여호수아의 인품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절대 순종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 시대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에 잘 따랐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찬양 행진” 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싯딤에 진을 치고 두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잠입시켰는데 이번 일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경험했던 것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밀사를 보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밀사의 보고를 받고 기습작전을 세우고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서편 길갈에 진을 쳤는데 여리고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적군의 공격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 요단강을 유유히 건너서 진군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잠도 잘 수가 없고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며 우왕좌왕하였습니다.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안절부절 공포에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옛새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 행진하게 했고 제철 일에는 일곱 번 돌게 하고 일곱 번째 돌 때는 양각을 가졌던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크게 불게 하였고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함성을 외치게 하였습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전략을 구세대들이 있었을 때 했었더라면 또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만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함께 했던 백성들은 한마디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미덕이라고 할까요? 결과는 크나 큰 기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고 이스라엘 장병들은 쉽게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이 내린 기적이라고 믿지만 어떤 성경 전문가들은 또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당시 여리고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요단강물이 범람했고 제7일날 마지막 찬양 행진을 할 때는 습기도 많고 온도가 낮아서 공기 밀도도 높았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크게 함성을 치니까 메아리가 사방으로 전파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두 밀사를 숨겨 주었던 기생 라합 가족만은 여리고성 함락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 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있습니다. 라합은 천한 신분을 가졌지만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귀한 분으로 알려졌지요.

독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 : 12-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8 절에 또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큰일을 잘 해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휘로 성취된 것입니다. 한가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룬 모세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애원했지만, 하나님은 들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결정적인 그의 실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분통이 터져 실수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명심해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철칙이지만 혹시 감정에 휩싸여서 일을 잘못 할 때가 있음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잘못 한 것을 깨달으면 자기 고집대로 우기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복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

건강상식 한마디. 노년층에 있는 분들은 어떤 때 좀 갑갑갑갑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늘 기억하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매의 시초라고도 합니다. 요 며칠 전에 건강 website에 이 증상을 다룬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흔해 빠진 딸기를 매일 먹었더니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지 않았대요.

“위안부 알린다” 한국 대학생 자전거 대륙횡단

한국 대학생 2명(하주영: 경희대, 조용주: 연세대)이 자전거로 대륙횡단을 하면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위안부 할머니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던중 뉴멕시코를 통과할때 한인회에서도 모임을 가진일이 있다. 두분 대학생은 대륙횡단을 무사히 마치고 아래와 같은 편지를 뉴멕시코 한인회에 보내 왔다.

3A Project 3rd 6/19-9/5
< 라이딩(Riding)>
6월 23일 엘에이를 출발 7
월 3일 앨버커키를 거쳐 9
월 1일에 뉴욕에 도착
총 구간 거리 : 3400mi
실제 라이딩 거리 :
3200mi
라이딩 기간 : 38일
하루 평균 라이딩
거리:85mi
현지자전거동호회와 동반라이딩 : 1회
< 활동>



사진: 9월 1일 맨하탄에 도착하여 일본총영사
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는
시위를 뉴욕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

언론과 인터뷰: 현지한국언론 20회/현지미국언론 15회 / 총 35회
현지인권단체와 미팅 : 2회
수요집회 : 5회
이상은 2017년 여름, 우리의 기록들입니다. 한국에서 26년 동안
울려 퍼진 할머니들과 동행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가방에
차곡차곡 담아와 미국 전역에 전달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미국 메인 언론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38분의 할머니들과 함께 여행을 시작했지만 현재 35분만이 남아
계십니다.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일은

뉴멕시코 컬처패스 Culture Pass



뉴멕시코주에서 운영하는 박물관과 역사적 유적지를 입장 할 수 있는 New Mexico Culture Pass (뉴멕시코컬처패스:문화관광패스)를 뉴멕시코 문화청(Mexico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에서 발행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에서나 온라인으로 \$25에 구입할수 있는 패스는 일년동안 사용할수 있는데 뉴멕시코 주에서 관리하는 8곳의 박물관과 6곳의 사적지(Historic Sites역사 유적지)를 일회씩 입장할수있게된다. 입장할수있는 박물관과 사적지는 아래와 같다. 문의는 505-476-1125 또는 웹사이트www.newmexicoculture.org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물관(MUSEUMS)

알라모고르도- New Mexico Museum of Space History
알버커키 --- National Hispanic Cultural Center
New Mexico Museum of Natural History and Science
라스크루세스 -New Mexico Farm and Ranch Heritage Museum
산타페 ----Museum of Indian Arts and Culture,
Museum of International Folk Art,
New Mexico History Museum / Palace of the Governors,
New Mexico Museum of Art

사적지(HISTORIC SITES)

Bosque Redondo Memorial at Fort Sumner
Coronado Historic Site
El Camino Real International Heritage Center
Fort Selden Historic Site
Fort Stanton Historic Site
Jémez Historic Site
Lincoln Historic Site ■

없지만, 분명 더 시급한 일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을 때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대학생들입니다. 어리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타인과 나누고 공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먼 땅에서 부모, 자녀, 직장인, 학생으로 바쁘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저희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조용주 글) ■

에베소서 제5장

5:1-21 하나님을 본 받는 자

“1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오. 2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가운데서 살아 가시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3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여러분의 입에 담지도 마시오.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일입니다. 4 추잡한 말이나 어리석은 수다나 야비한 말은 마땅치 아니 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시오. 5 여러분은 음행하는 자들이나 오입장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 곧 우상 숭배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 두시오. 6 어느 누구도 허황한 말로 여러분을 오도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7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자가 되지 마시오. 8 여러분은 예전에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 가시오.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10 주께 미쁜 일이 무엇인가 분별하시오. 11 그래서 열매 없는 암흑의 일들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들을 밝혀 내시오. 12 그들이 숨어서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13 그러나 빛에 의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밝히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입니다. 14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 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15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의깊게 살피서, 어리석은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들로써 살아가시오. 16 시간을 아끼시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시오. 18 술취하지 마시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오. 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20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21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빛진자들입니다. 죄의 빛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의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벌써 아시고 우리를 불러 선택하시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대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그 엄청난 죄의 빛을 다 청산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 만드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엡 2:10). 우리를 재창조하신 데에는

현용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엡 2:10 절에 그 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벌써)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선한 일가운데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것이라” 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한일이란 무엇일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죽어야 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 일을우리에게 맡기신 것일까요?

기독교의 최고 최대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66 권 모든 말씀의 본질적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 긍휼, 자비, 오래 참으심. 용서와 용납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1 절의 말씀은 자녀 된자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본받듯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본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새사람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 구석에 하나님 처럼 사랑이 배어 있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지으셔서 맡기신 그 선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마5:44-46 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하시어 이웃의 정의를 밝히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선한 일을 수행하기위해 네가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사랑 가운 데 행하라. 둘째는 빛가운데 행하라. 셋째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넷째는 세월(시간)을 아끼라.”입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쁘고 늘 반항만하는 어린 딸이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잠못 이루며 애태우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초상화를 확대하고 복사하여 그 밑에 자신의 이름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적지 않고, 단지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는 말만 써서 딸이 다닐만한 길목마다 붙여 놓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벽보를 보고 어머니의 모습과 어머니의 메시지를 뚫어지게 보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길로 어머니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원수나 핍박자를 보면 사랑할 수 없으나 그들을 위해 피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는 언제나 우리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며 오래참고 기다리셨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모든 이웃을 향해 우리도 오래참고 기도하며 사랑 가운데 행하고, 빛을 끝까지 비취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만에 다른 사람 10시간에 하는 일을 해내기도 합니다. 빨리 걷는 사람은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같은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초고속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빛의 자녀들이 빛으로 하는 선한일을 따라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므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참 삶이 1년이 채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였는가 하는 기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상세히 기록 되었을 것이고 또 기록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맡겨주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본문의 생활 규범입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이 혹시나 게을리 일할때 일하지 않고 놀고 있거나 어느새 다가온 어둠밤에 일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세월을 아껴서 우리의 모습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시고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온 몸과 영혼을 충만케 하여 사랑 가운데 행하고 빛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5:22-33,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22 아내들이여 주께 순종하듯 남편들에게 순종하시오.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어 하나됨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몸된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24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25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십시오 26, 27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그 교회로 하여금 자기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니, 곧 말씀을 통하여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입니다. 28 그러므로 남편들도 아내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9 누가 자신의 몸을 미워하겠습니까? 오히려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30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31 이리므로 사람이 그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32 이 비밀이 큼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33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아내를 자기자신 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 하십시오.

본 5장 전체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5:22-33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과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이웃사랑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 주인과 종간의 이웃사랑의 핵심이 이곳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제외하고 다른 사랑관계의 핵심은 5:21 절 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또는 ‘피차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4:1-6 절과 4:32 절에서 바울이 강조한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먼저 4:2-4 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같이 너희가 부르심안에서 부르심에 따르는 소망도 역시 하나이니라” 라고 피차복종 또는 서로순종하여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규정과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제물과 생축으로 바치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하여 남편이 아내의 구원자가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부부관계에서의 머리됨은 권위나 권세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란 뜻은 한 가정의 대표되는 사람이 남편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 역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사랑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순종하고 피차복종하고 서로 존경하는 것이 본문이 말하는 이상적인 부부관계이고 그 밖에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니면서 지상강림하신 후에는 종의 형체로 모든 사람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행하시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면 먼저 종이 되라고 하셨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와 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하며, 둘이 하나된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통일되는 우주적 교회의 시작’이고 주님께 들림받게 될 지상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 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체들임을 망각하고 모두가 머리가 되려는 것이 오늘 날의 비극입니다. 사단은 아내들을 향하여 내가 머리가 되라고 합니다. 머리는 지체들을 위해 희생적 사랑을 해야하는 데 그 원리는

<21 페이지로 계속>

자동차 이름과 사우스웨스트

이경화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자동차 회사가 신종 차를 시장에 출시할 때 차의 특성을 잘 표현하는 이름 짓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 새 차 이름 하나를 정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과 5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쏟아붓기도 한다. 새로 태어나는 차 작명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이유는 시판될 신종 차 이름이 고객에게 첫인상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름은 적어도 4~5년, 길게는 수십 년간 불리는 이름이 되기 때문이다. 차 이름으로 가장 장수한 이름은 크라이슬러의 뉴요커(New Yorker)였는데 1940년부터 1996년까지 56년 기록을 세웠다.

과거에는 자동차 이름에 동물 이름을 많이 썼다. 힘이 좋고 속도를 잘 내는 차는 빨리 달리는 동물 이름을 많이 썼다. 북아메리카에서 머스탱이라고 부르는 야생마의 이름이 포드의 머스탱(Mustang)으로 이름 지어졌다. 1964년부터 지금까지 53년간 장수한 머슬(Muscle) 중형차이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볼 수 있는 동물 중에 네 번째로 빠르다고 하는 임팔라(Impala) 영양의 이름을 따서 쉐보레(Chevrolet) 임팔라(Impala)가 나왔다. 황소를 라틴어로 토러스(Taurus)라고 하는데 1992년과 1996년 포드의 최고 판매 기록을 세운 토러스는 힘세고 에너지가 넘치는 황소의 이미지를 자동차에 연결한 것이다.

자동차 이름 짓는 일이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보니 자동차 제조회사에서는 신형 차 이름을 전문회사에 위임하는데 뉴욕에 있는 네임베이스(NameBase)란 회사가 브랜드 이름 작명 전문 회사 중 하나이다. 이 회사에서는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소렌토(Sorento), 스키에서 나온 포렌자(Forezza) 차 이름을 지어준 회사인데 이 회사의 사장 짐 싱거(Jim Singer)씨의 말을 빌리면 차 이름으로 쓸만한 동물 이름은 다 써버렸거나 상표등록을 미리 해놓아서 이제는 동물 이름에서 새로운 이름을 찾기가 어려워져 지명으로 차 이름을 짓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차 이름에 지명을 쓸 경우는 우선 발음하기 쉽고 품기는 느낌이 좋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이 가보고 싶거나 동경의 대상이 되는 곳이어야 한다. 미국이 아닌 외국 지명으로는 여행객이 많은 이탈리아 지명이 많이 사용된다. 기아에서 나온 소렌토(Sorento) SUV는 이탈리아의 나폴리항구 근처에 있는 'Sorrento'에서 'r'을 하나 빼고 따온 이름이다. 토요타의 시에나(Sienna) 미니밴 이름도 이탈리아 토스카니 지역에 있는 시에나(Siena)지명에서 따온 것이다.

미국 지명이 가장 많이 자동차 이름에 쓰이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에서도 서부 지역 또는 사우스웨스트 지역이 자동차 이름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사람들이 늘 가고 싶어하는 곳이 서부 지역인 까닭에 그곳 지명이 차 이름으로 많이 쓰인 것 같다.

지명의 종류를 보면 높은 산 이름, 도시 이름, 지역 이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산 이름으로 북미에서 제일 높은 산, 알래스카에 있는 데날리 산(Denali:매킨리산이라고도 불렸었다)이 GMC

에서 내놓은 픽업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port Utility Vehicle:SUV)에 쓰였고 여기에 다른 지명을 연결해 시리즈로 만들었다. 캐나다의 북쪽, 알래스카 접경에 있는 유콘(Yukon)지역 이름을 붙여서 혼성어로 만든 유콘 데날리 SUV(1999-2017), 캘리포니아에 있는 높은 산 시에라네바다(Sierra Nevada)산 이름과 합친 시에라 데날리(Sierra Denali) 픽업트럭(2001-2017)은 그 예가 된다. 워싱턴주의 시애틀 남쪽에 있는 웅장한 레이니어산 이름은 제너럴모터스(GM)의 뷰익(Buick)이 레이니어(Rainier) SUV 이름으로 가져갔다(2004-2007).

산 이름은 아니지만, 시에라 네바다산 속에 있는 타호호수 이름도 발탁되어 쉐보레 타호(Tahoe) SUV가 나왔고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서쪽 사면에 있는 세쿼이아 국립공원 이름을 따서 토요타에서는 세쿼이아(Sequoia) SUV를 내놓았다.



Sierra 1500 Denali Pickup Truck(GMC)

넓은 지역이나 주 이름이 차 이름에 이용되기도 했다. 콜로라도 주 이름은 쉐보레(Chevrolet)에서 2004년에 내놓은 픽업트럭 이름으로 가져갔다. 크라이슬러 닷지 디비전에서 만든 닷지 다코타(Dodge Dakota)(1987-2011)와 쉐보레의 몬태나(Montana) 트럭(2003-현재) 역시 주 이름을 빌려 차 이름을 정했다.

지명으로 이름 지은 차 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차는 아마도 쉐보레 말리부(Malibu) 자동차 같다. 말리부는 로스앤젤레스 서쪽 해안가에 있는 도시로 해안가로 달리는 1번 도로의 27마일 구간은 경치 좋기로 유명하다. 쉐보레 말리부는 고급 승용차로 1964년 출시 첫해에 20만대 판매 실적을 올렸던 차이다. 태평양 해안가의 또 하나의 도시가 토요타 차 이름에 올랐다. 시애틀 아래에 있는 터코마 항구도시다. 터코마는 근처에 있는 화산인 레이니어의 이름이었는데 원래 이름 Takhoma에서 도시 이름을 따서 Tacoma로 지어졌다. 토요타 터코마(Tacoma)는 1995년부터 시판되어온 픽업트럭이다.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SUV라고 부른 신종 차를 처음 출시한 회사는 AMC(American Motors Corp.)의 지프(Jeep)였다. 1984년도 지프 체로키(Cherokee)가 세상에 나오므로 SUV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체로키란 이름은 인디언 부족 이름이다. 체로키 부족은 서구 문화를 잘 흡수해 문명화된 인디언으로 알려졌다. 1838년 시행된 인디언 이주 정책으로 원래 살던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 오클라호마주의 보호



1997-2001 Cherokee Sport

구역으로 강제 이주했다. 오클라호마주 동북부에 체로키 네이션 (Cherokee Nation)이 체로키 부족의 오늘 현주소이다. 옛날에 있었던 강제이주 과정을 '눈물의 길'로 부르는데 1000마일이 넘는 먼 곳으로 강제로 이주당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약자와 어린이가 죽었으나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여유가 없었다.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는 죽은 가족을 매장할 때마다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노래가 되었고 이후 이 노래는 체로키네이션의 비공식 애국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지프 체로키 SUV가 나온 후 서부 지역에 있는 많은 지명이 SUV 차 이름으로 지어지기 시작했다. 콜로라도에 있는 경치 좋은 관광 도시 두랑고(Durango)가 1998년 닷지(Dodge)에서 만든 두랑고 SUV 차 이름이 됐다.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크라이슬러에서 내어놓은 아스펜(Aspen) SUV 역시 콜로라도 스키장으로 이름난 휴양지 이름이다. 한국의 현대와 기아에서 나온 많은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SUV가 사우스웨스트 도시 이름을 따다. 우리에게서 아주 가까운 산타페(Santa Fe) 도시 이름이 2001년에 출시한 현대차의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SUV) 산타페가 됐다. 산타페가 미국에서 제일 역사 깊은 Capital City라는 점, 일 년 관광객 수가 100만이 넘는 점을 고려하고 거기에 스페인어인 'Santa Fe' 이름의 의미가 성스러운 믿음(Holy Faith)이란 것까지 생각하면 차 이름으로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다. 2004년에 애리조나에 있는 겨울의 휴양도시로 볼 수 있는 투산(Tucson) 도시 이름을 따서 현대 준중형 투산 SUV 이름이 지어졌다. 기아에서도 역시 애리조나 관광 휴양도시인 세도나(Sedona) 이름을



Durango 2017 (Dodge)



Santa Fe SUV 2017 (Hyundai)

따서 기아의 미니밴 세도나를 2006년 출시했다.

자동차 관련 잡지로 Auto Remarketing이 있는데 2년 전에 나온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소개 하고 싶다. 기사 제목은 '지명으로 이름 지어진 차, 이름 지어진 곳에서 인기 있을까?' (Are vehicles with location-based names popular in those places?)였다. 현대 산타페 SUV가 출생지인 뉴멕시코 산타페에서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2015년 한 해 동안 새 차 등록한 통계자료로 분석했다. 2015년 한해에 등록된 차 중에서 산타페는 0.1%밖에 안 되는 저 인기였는데 반면 워싱턴 DC 남쪽 체서피크만에 있는 클레멘트란 마을에서는 신규 등록 차량의 5.6%가 현대 산타페여서 최고의 인기를 얻은 곳으로 나타났다. 기아의 세도나 미니 밴의 조사 결과도 내어놓았다. 2015년 한 해 동안 세도나에서는 한 대의 기아 세도나의 신규등록도 없는 것으로 보아 세도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웨스트 버지니아의 작은 마을 시다 글로브 (Cedar Grove)에서는 13%의 신규 등록이 세도나였다고 한다. 자동차도 자기 이름을 탄생시킨 고향에서는 인기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 가서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기록을 보는데 자동차도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 모양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자동차의 경우는 이상한 일이 아닌 듯싶다. 이미 내가 사는 지역은 동경의 대상이 아닌 까닭에 차 이름이 자기 고향 이름이면 본토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람들에게는 가보지 않은 먼 곳을 동경하는 마음이 늘 있게 마련이니까. 우리가 사는 사우스웨스트는 많은 사람이 가보고 싶어하는 동경하는 곳이라는 사실도 자동차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됐다. ■



Tucson SUV 2017 (Hyundai)



Sedona Van 2017 (Kia)



<18 페이지에서 계속>

버리고 권세자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 처럼 우리 모두는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자신에게 해가 될지언정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수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해 드리는 사랑의 천사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a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 (626)272-1042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www.facebook.com/kumcabq/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신동완 파우스티노 사목회장
장재준 안드레아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순복음교회

이 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금요일예배: 7:30pm
새벽기도회: 6:00am(월-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a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알버커키 Albuquerque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275- 9021)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주택용자 Loan Officer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부동산 Realtors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김미경 Mikyong Kim Bank of Albuq.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건축/페인트 Painting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Salon 47(황경희 Kay Latham) 5850 Eubank Blvd., NE (505-225-4983)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47 (505-296-2335)	치과 Dental Clinic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공인회계사 CPA	세탁소 Dry Cleaners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Asian Pear 508 Central SW, ABQ (505)766-9405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리커스토어 Liquors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태권도 TaeKwonDo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 899-0095)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Dynamic taekwondo acad- emy 5850 Eubank blvd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자동차정비 Auto Repair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의류 Clothes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한의원 Acupuncture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교회 Church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화랑 Gallery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Park Fine Art Gallery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505-764-1900)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p>회원/원예 Nursery</p> <p>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p>	<p>교회 Church</p> <p>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505)-269-0691</p>	<p>식당 Chinese Restaurant</p> <p>Bamboo Express 143 Highway 314 SW Los Lunas NM87031 (505) 866 6888</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Liquors #1 387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2244</p> <p>Kelly Liquors #2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960</p>	<p>식당 Restaurant</p> <p>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p>
<p>사진관 Photo</p> <p>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p>	<p>병원 Clinic</p> <p>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p> <p>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p>	<p>교회 Church</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626)272-1042</p>	<p>식품 Korean Grocery</p> <p>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p>
<p>중재서비스</p> <p>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p>	<p>산타페 Santa Fe</p> <p>손톱미용 Nails</p> <p>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p>	<p>교회 Church</p> <p>클로비스 Clovis</p>	<p>화밍톤 Farmington</p> <p>교회 Church</p> <p>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p>
<p>단요가 Dahn Yoga</p> <p>알버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아스트마운트505-286-3535 www.dahnyoga.com</p>	<p>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p> <p>건강식품 Health Food</p> <p>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p>	<p>변호사 Law Firm</p> <p>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p>	<p>교회 Church</p> <p>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p>	<p>상점 Store</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p>
<p>라스베가스 Las Vegas</p> <p>치과 Dentist</p> <p>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p>	<p>교회 Church</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626)272 -1042)</p>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p>	<p>백화점 Mart</p> <p>T-Mart 120 W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p>	<p>광야의 소리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voiceofnm voiceofnm.kumcabq.com</p>
<p>라스쿠르세스 Las Cruces</p> <p>공인회계사 ACC</p> <p>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p>	<p>리오란초 Rio Rancho</p>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p>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p>	<p>교회 Church</p> <p>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p>	<p>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017년 9/10월호 발행일: 2017.9.8 발행인: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p>
<p>카페/선물 Cafe/Gift</p> <p>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p>	<p>베이커리 Bakery</p> <p>베이커리 B&B(양성권)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p>		
	<p>버나리요/벨렌/보스키팜/로스루나스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p>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마이크 조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Sushi Hama

Japanese Restaurant & Sushi Bar
5:00-8:00 P.M. Daily

식당비즈니스를 505-293-6055
매매합니다 2918 Eubank NE
Albuquerque, NM 87111
(Corner of Eubank and Candalaria)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 삼선짬뽕
해물탕면 / 다섯가지 냉채
판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탕수우육 / 양장피 잡채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Beer & Wine
Tues-Sat 11:00am-9:0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505)292-8222



성심을 다하는
부동산 전문가
그레이스 김

Grace Kim
김 천
Associate Broker/Realtor



주택
토지
사업체

R1 REALTYONE
OF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전화: c 206.765.0836 o 505.883.9400
Email: kgrace7@msn.com
9674-3 Eagle Ranch Rd NW Albuquerque, NM87114 Website: www.realty1newmexico.com

metroPCS

앨버커키 지역
MetroPCS 딜러로 모십니다



MeetroPCS는 미국내 최고의 가격 경쟁력과 폰 라인업을 갖춘 Pre-Pay Wireless회사입니다. Cricket와 비슷한 구조이나 초 고속 무제한 T-Mobile Network로 시장을 석권합니다. 달라스에서는 10년전부터 이미 많은 한인 분들이 성공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시고 전체 달라스 물량의 60%를 한인들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새로운 Business에 참여하셔서 메트로 패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Dealer: 직접 새로운 Location을 찾으셔서 문의해주시거나 현재 운영중인 가게를 인수하셔도 됩니다.
연락처: JAMIE KIM Tel: 505-401-9185 Email: jamie.kim@tomorrowtelecom.com

